

# Japan Weekly Digest

2012. 8. 04 ~ 2012. 8. 10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일본 전력시장에 특정규모전기사업자(PPS) 재등장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탈 원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경산성·업계간 상반된 입장
- 일·중, 에너지절약 분야 47개 협력사업 추진
- 태양광 전지의 중요 부재 양산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**협회 한일경제협회**

**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**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① 주간경제초점 : 일본의 전력시장에 특정규모전기사업자(PPS) 재등장

### □ 일본제지 등 유력기업들 잇따라 참여

-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총아로서 신전력(특정규모 전기사업자)이 다시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음
  - 대지진 이후 14개사가 신전력에 신규 참여하여 63개사. 전력시장점유율(판매점유율)은 2%정도이나 경쟁 환경을 보다 유리하게 하는 전력제도의 개혁바람이 불고 있어, 향후 신전력이 경직된 전력시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관측
- 신전력은 2000년 전력자유화로 소매분야에 참여가 인정된 특정규모사업자(PPS)로서 '12년 봄부터 경제산업성이 신전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
  - 당초에는 계약 전력량 2,000kw이상의 공장이나 백화점 등을 자유화하였으나, 단계적으로 참여분야를 확대, 현재는 소형공장 등 50kw이상까지 총 전력량의 60%가 자유화되어 있음
  - 일본정부는 7월, 편의점, 가정 등을 포함한 전 분야의 자유화 방침을 결정
- 소재산업분야에서 발전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'12년 5월 신규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일본제지그룹이 코스트 경쟁력에서 사상 최강의 신전력이라는 평가
  - 보유전력은 원전 2기분에 해당하는 174만kw로 대형 전력회사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
  - 전력생산은 연료비가 액화천연가스(LNG)의 절반 이하인 석탄화력으로, 자가발전설비의 운전실적도 풍부
- 지방자치체와 기업들이 전력조달처를 신전력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음
  - 연료비 증가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동경전력과 신전력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. 피크 시에 대비하여 잉여 전력을 안고 있는 대형 전력회사에 비해 설비를 풀가동시키고 있는 신전력은 코스트에서 우위에 있음

### □ 자가발전 규모 30%

- 기업 등이 보유한 총 자가발전설비는 약 6,000만kw로 10대 전력회사의 합계치 30%에 상당하는 규모. 지금까지 내부소비를 중심으로 외부판매가 적었던 이

른바 매장전력이 이제부터는 국내생산 축소됨에 따라 자가발전의 잉여분이 전력시장에 공급

- 경제산업성 전력시스템개혁전문위원회는 7월 전력회사의 발전부문과 송전부문을 분리, 신전력이 송전망을 사용하기 쉽도록 하는 동시에 전력시장으로부터 조달하기 쉽도록 하는 등 일련의 전력개혁방안을 도입하여 신전력을 제도면에서 지원하고 있음
- 유력기업들은 절호의 비즈니스 기회라고 판단하고 전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음. 약 130만kw의 설비를 가진 JX닛코닛세이키는 가와사키천연가스발전분야에서 발전소건설을 검토. 코스모석유는 풍력발전설비를 2016년까지 60%가 증가한 24만kw로 늘리는 등 그린전력에 대한 수요를 겨냥하고 있음
- 전력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시대에서 보다 저렴한 전력이나 환경배려형 전력 등을 선택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

## □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막중

- 전력시장의 민영화는 전력 소매가 일부 자유화된 2000년 이후부터 종합상사 등이 잇따라 참여하여 경쟁을 촉진시킨 결과, 산업용 전력요금이 20% 이상 하락
- 그러나 원유상승으로 신전력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. 미쓰비시상사계열의 다이아몬드파워는 2003년에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계획한 바 있으나, 온난화 가스배출량 증가를 이유로 정부에서 규제하여 포기한 바 있으며, 이후 신전력은 이른바 겨울의 시대를 보냄
- 이번 신전력에 대한 기대는 과거와는 양상이 다름. 전력제도개혁으로 신전력의 경쟁 환경이 크게 개선된 데다가 탈 원전의 기운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
-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전력의 공급책임 의식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,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우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임
- 대지진 이후 어느 신전력회사에서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고객에게 공급을 중단하고,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주는 동경전력에 전력을 판매한 케이스도 있음
-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커짐. 신전력은 고객의 요망과 신뢰를 충족시키면서 대기업들의 독점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임

## 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### □ 원전제로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경제산업성·업계간 상반된 입장

- 에다노 경제대신은 원전을 제로로 하더라도 경제에는 오히려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고 발언, 탈 원전 노선을 비판하는 경제계를 견제
  - 경산대신은 원전제로가 되더라도 재생가능 에너지나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이 가속화되어 내수확대로 이어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로 발언
- 이에 대해 경제계의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경단련과 일본상의는 원전제로는 비현실적이라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고정가격매입제도에 대해서도 전력비용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
  - 전문가의 시산에 따르면 전기료의 상승으로 GDP 대한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제조업의 공동화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
- 실제로 원전 재가동의 지연으로 전력회사 연료비 부담이 증가함. 일본종합연구소의 시산에 의하면, 연료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려면 2010년 대비 30%정도의 전력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
-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에너지 비전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한다는 것인데, 발전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그만큼 전기료가 상승
  - 원전제로의 경우 정부가 시산하는 2030년 전기료는 일반가정에서 월 0.4만~1.1만엔 상승. 원전을 가동하더라도 재생에너지는 추진하기 때문에 가령, 원전의존도가 20~25%라 해도 전기료는 0.2만엔~0.8만엔 상승
- 기업은 가계 이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전망. 일본종합연구소의 시산에 의하면, 2030년에 원전제로를 실시하는 경우 생산비용 상승분은 기업 전체로 5.4조엔, 이중 제조업은 2.5조엔으로 기업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하게 됨. 원전의존도가 20~25%인 경우에 비하여 생산비용 상승폭은 1.8배
  - 그 결과 GDP성장은 원전 제로인 경우 2030년 GDP는 최대 45조엔 감소, 연간 성장률로는 0.4%포인트 마이너스. 그러나 시산방법에 따라 폭이 크고, 영향이 적은 케이스에서는 연간 성장률이 0.06포인트 감소
- 에다노 경산대신은 정부의 시산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기술진보나 이에 따른 내수확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. 이들 요소들을 고려하는 경우, 플러스효과가 크게 된다는 입장임
  - 그러나 경산대신도 신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님. 국민적인 논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도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기 쉽도록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

## □ 일·중, 에너지절약 분야 47개 협력사업 추진키로

- 일·중 양국정부는 에너지절약·환경종합포럼을 개최, 일·중기업들이 양국 정부의 입회하에 47개 협력문서에 조인
-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단지조성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커뮤니티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이 제휴
  - 이 포럼에는 일본에서 에다노 경산대신과 호소노 환경대신, 중국에서 장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, 고호성 상무부 국제무역교섭대표 등이 참석
- 에다노 경산대신은 앞으로 에너지절약·환경 분야가 경제성장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, 중국의 에너지절약대책이 발전하고 그것을 모델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발언
- 일·중 에너지절약포럼은 2006년부터 매년 일본과 중국에서 교차 개최
  - 이번에 조인된 사업에서는 일본의 통신벤처인 에어마이크로가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스마트미터를 개발, 도시바가 중국의 금주시와 스마트커뮤니티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하기로 하는 등 최신기술 분야에서 공동사업들이 포함
- 이제까지 동 포럼에서 결정된 공동사업은 누계 218건.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당초는 연안부의 사업이 많았으나 현재는 내륙부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

## □ 태양광 전지의 중요 부재 양산

- 대일본인쇄가 태양전지용 중요 부재인 봉지재를 양산. 수분을 차단하는 성능이 현재 주류인 봉지재보다 10배가량 높고 누전에 의한 출력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
- 동사는 최근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태양전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재로서 국내외 패널메이커들에 공급, 2015년(3월 결산기)에는 태양전지 매출액을 2012년(3월 결산기)보다 2배 이상 많은 200억엔으로 늘릴 계획임
  - 태양전지보급확대센터에 따르면,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금년 4~6월 기간 중 평균가격은 출력 kw당 50만엔 정도로 전년 동기대비 10%정도 하락
- 동사는 지금까지 일부 태양전지메이커에 시험적으로 공급해 온 결과, 안정적인 성능을 기반으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양산한다는 계획임
  - 신규 투자는 아니지만 연간 태양전지 100만kw분을 생산할 수 있으며, 가격은 종래 EVA를 사용한 봉지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
- 후지경제연구소에 의하면, 태양전지부재의 세계시장은 2020년에 약 6조 8000억엔으로 2010년의 2.7배로 확대될 전망

###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후지제약공업	2012.8.4	제약	태국/OLIC	직접투자/매수, 매수가액 약 42억엔
고베제강소	2012.8.4	자동차용 선 재가공	태국	직접투자/생산능력 50% 증강, 투자규모 약 11억엔
OSG	2012.8.5	절삭공구	베트남, 인도네 시아	직접투자/절삭공구재연마공장 건설, 투자규모 약 2.4억엔
일신제강	2012.8.6	방청강판	미국	직접투자/도금강판의 생산설 비 추가, 투자규모 20억엔
신일본제철/ 스미토모강관	2012.8.7	강관	멕시코	직접투자/자동차용 강관생산공 장 건설, 투자규모 약 31억엔
미쓰이물산	2012.8.7	차세대전송망	미국/빌리디티 에너지	자본제휴/전력의 이용효율을 높 이는 장치의 신흥국시장 개척
이토야	2012.8.8	문구	미국	직접투자/문구의 다점포화 사 업 착수
이스즈자동차	2012.8.8	자동차	중국/강령기차 집단	자본제휴/픽업트럭 및 소형엔 진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, 합 작비율 50%, 투자규모 70억엔
스카이마크	2012.8.9	항공기	유럽	은행차임/에어버스 A380구입, 구입규모 1500억엔
스미토모금속	2012.8.9	엔진부품	중국, 인도	직접투자/중국과 인도에서 크 랭크샤프트의 생산능력 증강 투자
테이진	2012.8.10	의류용 섬유	중국	자본제휴/중국기업과 폴리에 스텔 섬유의 리사이클 합작회 사 설립, 자본금 5천만달러 테이진이 49%출자

\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####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일본통상전략의 평가와 과제』 일본종합연구소, 8월4일

\*출처:<http://www.jri.co.jp/file/report/policy/pdf/6238.pdf>

(2) 『신중간층 획득전략: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과 함께 성장하는 일본』  
경제산업성, 8월4일

\*출처:[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kenkyukai/external\\_economy/chukan\\_kakutoku/report01.html](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kenkyukai/external_economy/chukan_kakutoku/report01.html)

(3) 『일본 통상전략의 과제와 전망』 21세기정책연구소, 8월7일

\*출처:<http://www.21ppi.org/pdf/thesis/120806.pdf>

(4) 『에너지 자치와 경제산업구조 비전』 미쓰비시UFJ리서치엔컨설팅, 8월8일

\*출처:<http://www.murc.jp/report/quarterly/201203/11.pdf>

(5) 『21세기 숨은 챔피언 - 숨은 챔피언기업이란 무엇인가』 경제산업연구소, 8월9일

\*출처:[http://www.rieti.go.jp/jp/special/p\\_a\\_w/018.html](http://www.rieti.go.jp/jp/special/p_a_w/018.html)